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duce Components of the Public Library Culture

이 시 영 (Si-Young Lee)**

장 우 권 (Woo-Kwon Chang)***

목 차

- | | |
|---------------------|--------------------------|
| 1. 서론 | 3.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 |
| 2. 이론적 배경 | 3.1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과정 |
| 2.1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 3.2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우선순위 도출 |
| 2.2 문화와 공공도서관문화 | 4.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도서관문화의 정의를 규명하고,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수집한 뒤 그 내용을 수렴하여 최종 요소를 도출하는 델파이기법과 도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요소별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검증할 수 있는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기법과 계층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해 도출된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패널(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도서관사서)을 대상으로 1·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문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29개 요소(물질문화 6, 비물질문화 23)를 추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21개 구성요소(물질문화 3, 비물질문화 18)를 도출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를 쌍대비교를 통해 나타난 우선순위는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가중치가 가장 높은 요소로는 <물질문화>의 '자료 이용 및 이용법', <정신문화>의 '사서의 가치관', <행동문화>의 '도서관 윤리·의식'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deduce components of a public library culture and define a library culture. Thus, the study gathers the opinio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expertise in this specific area of a library culture. Furthermore, the study takes gathered informations and dates into consideration, to derive a measurement of final components, delphi technique. Through usage of Delphi technique, it allowed selected final components to oper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lements, which then it helps to measure each element's critical importance, identify priorities of each element by using a hierarchical decision making method.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used a two-step delphi survey which was conducted on a panel of experts (Facul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and the librarians), deduced the components of a library culture. In the primary survey, the study found 29 components (material culture 6, non-material culture 23). In the secondary survey, it deduced 21 components (material culture 3, non-material culture 18). Seco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prioritization of the public library culture components presented in following orders, <cultural values>, <cultural behavior>, and <cultural materialism>. The Most weighted values of each components were, <cultural materialism> of 'data usage and its method.', <cultural values> of 'core values of librarianship', <cultural behavior> of 'library ethical consciousness,' appeared as such.

키워드: 공공도서관, 문화, 도서관문화, 공공도서관문화,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Public Library, Cultural, Library Cultural, Public Library Cultural, Public Library Cultural's Components

*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lsyou2402@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97-120,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097]

1. 서론

사람들은 도서관과 관련한 많은 현상들을 도서관문화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도서관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문화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관련한 태도나 인식, 현상 등을 도서관문화로 이해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나, 문화활동 등을 도서관문화라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도서관문화를 나타내는 현상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서관문화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미진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문화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1994년 발표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임무로 정보, 읽기와 쓰기, 교육, 문화와 관련한 중요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며 구전되는 문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요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문화현상이나 인식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문화에 대한 축적된 연구와 새로운 조사를 토대로 도서관문화의 정의를 규명하고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집단(문헌정보학과 교수와 공공도서관 사서)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의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 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검증하였다.

도서관문화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없었으며, 관련된 연구로 이두영(1990)은 '90년대 초기에 들어서 변천하는 사회와 공공도서관문화를 재조명하고,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도서관문화를 창출하자고 주창하였다. 이용남(1996)은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문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논의, 전문직다운 의식 등 우리 공공도서관문화의 현주소를 역설하였다. 이상의 논문은 '90년대의 우리나라 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계몽을 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류였다면 김용성(1999)은 “문학사상, 역사사상, 철학사상 등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도서관 문화사상을 탐구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서관문화를 조명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문화에 대한 제반연구는 공공도서관문화가 무엇이며 도서관문화의 수준은 각 도서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2.1.1 공공도서관의 개념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시대의 이념과 철학을 반영하며,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이상복 2013, 186). 오랜 과거시대부터 쓰여 오던 공공도서관이란 용어의 개념은 일반대중에 공개 한다는 의미로 쓰여 왔었다.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는 '공개성', '공비성', '무

료성'의 3대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용남 1990, 311).

공공도서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성에 의해 그 사회가 가진 문화를 축적하고 보존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시설로서 기능하여 왔다. 아울러 지식기반사회, 문화 복지국가 구현과 국민의 지식정보 이용활성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첫째,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 둘째,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셋째, 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 넷째, 레저여가센터로서의 기능, 다섯째, 생활편의 센터로서의 기능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7).

도서관법 제28조에는 “공공도서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②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③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⑥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⑦ 그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자유, 기회의 균등, 시민 참여, 정보에 기반 한 민주주의,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를 포함한 중요한 가치를 대표한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64). 도서관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고유 가치를 향상시킨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

소 2012, 162). 따라서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예측이 많지만 종이 책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이은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2015/12/24>).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로서 지역민의 지적 성장과 문화 형성을 주도하는 문화시설로서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다.

2.1.2 공공도서관의 구성요소

공공도서관의 존재와 서비스 제공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공도서관의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의 구성요소는 자료, 사람, 건물(시설)이다.

첫째, 자료이다. 도서관에서의 자료는 도서관이 존재하는 첫 번째 요소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자원을 총망라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토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된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강은영, 장덕현 2012, 458). 이러한 공공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둘째, 사람이다. 도서관 구성요소 중 사람은 도서관의 인적요소로 직원(사서)과 이용자를 말

한다.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는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에 달려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 직원이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한 직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윤희운 2011, 73).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직원은 교육, 연구, 그리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급이 구분되어야 한다. 직원의 배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한 분야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직원배치 기준이 필요하다(한상완, 서혜란, 박철완 1997, 236).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직원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봉사이념 및 윤리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마음을 소지하고, 개개 전문가 및 전문단체의 일원으로서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이두영 1998, 8).

셋째, 건물(시설)이다. 도서관 건물은 도서관의 구성요소, 즉 자료, 사람, 시설을 담는 틀이자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편, 도서관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들의 범위와 수준은 상당부분 장소 즉 건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08, 132). 도서관 건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공한다. 첫째, 매력적이고 기능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다. 둘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운영 및 지속가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성과 융통성 있게 이용이 되도록 설계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요구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서, 자원 및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2, 29). 미래 도서관들의 창조적이고 유연한 공간은 수많은 기술로 다중작업을 하는 디지털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이며 동시에 조용히 독서할 공간이나 인쇄 자료를 찾아보는 전통적인 이용자들도 받아들일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127).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2 문화와 공공도서관문화

2.2.1 문화

Tylor는 문화를 “지식·신앙·법률·도덕·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Tylor 1871, 1). Tylor의 정의에서 중시된 점은 문화란 인간 고유의 소유물이며 인간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행동양식이라는 점이다.

White와 Dillingham은 무엇이 동물계에서 인간의 행위를 다른 동물의 것으로부터 구별 짓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간은 상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임에 유의하여 이것이 바로 문화의 기초라고 개념화했다(White and Dillingham 1973, 10). 즉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상징적 요소를 통한 문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인간에 의해 추구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상징과 기술의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것이 인간

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둘째, 문화는 어떤 특정한 사회에 있어서의 특유한 생활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학습된 것이며, 합리적이고, 통합된 것이며, 역동적으로 적응된 행동과 신념의 공유된 유형이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태용 1999, 132).

문화의 개념을 총체론적 관점에서 내용을 나누면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된다(Ogburn 1922, 15; Bierstedt 1957, 10). 물질문화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적 생산물과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화이다. 비물질문화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이 아닌 모든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영복 1997, 18-19). 즉, 물질문화는 도구, 건물, 기계, 시설, 의상, 약품 등을 생산하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화를 가리키며 비물질문화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념, 관습,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등을 말한다. 비물질 문화는 학문, 종교, 예술 등 정신적 창조물을 가리키는 정신문화와 관습, 민속, 제도 등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행동문화로 구분된다(김용성 1999, 210).

총체적 개념의 문화는 실제로 세 가지 측면, 즉 물질적, 인지적, 그리고 행위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유태용 1999, 11-12). 첫째, 물질적 측면은 인간이 생산한 모든 물질적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인지적 측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셋째, 행위적 측면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히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접촉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문화란 주어진 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적

응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들의 생활지혜이며, 삶의 적용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행위적 측면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행위구조는 적어도 행위의 수단인 도구, 행위의 목표인 가치, 행위의 규칙인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손연기 1997, 188).

첫째, 인간이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편적 수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도구 문화'(용구문화 또는 경험적 문화)를 구성한다. 둘째, 인간의 사회생활은 행위의 의미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제공하는 문화는 '가치문화 또는 관념적 내지 이념적 문화'라고 한다. 셋째, 인간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공인된 규범적 절차와 규칙이 필요하다. 이를 제공하는 문화는 '규범문화'라 하여 '제도적 문화'라고도 한다.

따라서 총체론적 관점에서 문화의 구분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의 구분과 내용

구분		내용
물질 문화	용구문화	도구, 건물, 기계, 시설, 의상, 약품 등을 생산하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화
	정신문화 (관념문화)	신념, 이데올로기, 철학, 학문, 종교, 예술
비물질 문화	행동문화 (규범문화)	관습, 사회제도, 법률, 도덕, 민속

2.2.2 공공도서관문화

도서관은 인간의 사상과 활동의 기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기록을 보존하고 정리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케 하는 사회적인 장치, 문화적인 기관이다(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 <https://encykorea.aks.ac.kr/>). 인간의 지적생산물의 집합체요, 서비스기관으로서의 “도서관문화는 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양식과 사고양식을 포함한 적응기제로서의 도서관 생활양식의 일체”다(이두영 1990, 259). 또한 “도서관은 사회기관, 문화기관, 교육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문화의 구성요소인 도구, 조직, 제도, 전문성 등을 갖추고 학문의 진보에 공헌함으로써 도서관문화를 이룬다”(김용성 2002, 131).

따라서 도서관문화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환경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용자들의 일련의 행동양식, 가치, 관념 등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문화의 특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문화는 지식과 정보 습득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을 공유한다. 문화적 지식이란 무엇보다도 개인적 지식이면서 사회성원들 간에 공유된 지식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지식은 산술적으로 단순화한다면, 개인적 지식의 합집합에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즉, 누구와도 전혀 공유되지 않은 지식을 뺀 것이다(김용환 2003, 163-164). 따라서 도서관을 통하여 생성되는 문화는 이용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공유되고 전파된다. 둘째, 도서관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로를 통하여 학습되어 진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학습과 교육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성장하며 사회적으로 적응해 간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고 도서관 등을 통

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을 익히는 생활방식의 문화를 갖게 된다. 셋째, 도서관문화는 축적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인간의 경우 윗세대의 경험적 지식은 상징적인 수단인 언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축적된다(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2011, 84). 따라서 도서관문화는 자연발생적 또는 제도적인 축적을 통하여 사멸되거나 계승되고 발전된다. 넷째, 도서관문화는 개인만이 아닌 기관이나 지역사회 전체로서 하나를 이룬다. 문화의 모든 측면은 상호 연결되어 어떤 한 쪽의 변화도 통합체계의 다른 부분까지 변화하게 한다. 즉 도서관문화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를 이루며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변화는 통합되고 또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사회의 문화적 현상이 합리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문화는 사회 환경과 기록매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변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기록물의 축적과 전승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록매체의 변화는 도서관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3.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

3.1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과정

3.1.1 연구방법 및 과정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설문은 비구조화된 응답양식

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1차 조사에서 사용하여 추상적 요소를 개념화함으로써 개념의 이해를 돕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설문지의 회수를 줄일 수 있었다.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1차 설문은 반개방적으로 제시하고 수집된 1차 설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을 구성하여 2차 설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차 델파이설문은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어진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 후 폐쇄형 설문을 개발·조사하였다.

2차에 걸친 델파이기법의 수행은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하여 합의를 도모하고 문제를 추정하거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의 구조화된 설문지의 1차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폐쇄형 설문으로 실시된 2차 설문조사는 각 항목간의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고 생성된 이론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선정

이 연구의 참여자는 델파이기법 적용을 위한 전문가들로서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델파이 초기조사의 진행에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답할 참여 전문가들의 논리적 형평성과 회수율 증대를 위하여 고정 패널로 정하였다. 교수진 패널은 연구의 관련학문 전공자로 국내 학위 5명,

국외 학위 5명으로 총10명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연구자로 엄선하였다. 또한 사서진 패널은 지역적 형평을 고려하여 수도권 5명, 호남권 2명, 영남권 2명, 기타 1명으로 공공도서관 사서 10명으로 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델파이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특성

구분		참여 전문패널 수			
		1차		2차	
		교수	사서	교수	사서
학력 수준	학사	0	5	0	7
	석사	0	3	0	3
	박사	8	0	10	0
	계	8	8	10	10
관련 분야 종사년 수	5~10년 미만	3	4	5	3
	10~15년 미만	0	2	0	3
	15~20년 이상	5	2	5	4
	계	8	8	10	10

사서진 패널 선정은 위해서는 전국도서관대회 참여자 명부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하고 설문문에 응답한 사서를 대상으로 지역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안배하였다. 특히 주제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 사서의 참여율과 관심도가 높아 패널로 선정되었다.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2차에 걸쳐 공공도서관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차 조사는 총 2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2차 조사는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폐쇄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조사에서는 교수진 패널은 1차 설문을 진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1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사서진 패널은 1차에 발송한 이메일 대상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1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집은 2주간의 기간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대상자인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다. 조사는 2015년 2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40여 일 동안 실시하였다.

총 2차에 걸친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에 관한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반개방형 설문지의 제1차 조사에서는 목표표집 인원의 80%(16명)가 응답에 참여하였고, 폐쇄형 설문지의 제2차 조사에서는 100%(20명)가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측정항목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문화 구성요소의 영역을 ① 물질문화(용구문화) 4개 요소, ② 비물질문화(정신문화) 6개 요소, ③ 비물질문화(행동문화) 14개 요소로 총 24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각 영역에 속한 요소에 대하여 반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하여 <표 3>과 같이 공공도서관 문화의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한 요소를 토대로 연구영역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표 3> 연구영역 항목도출

상위 계층	중위 계층	요소 수	하위계층
물질 문화	용구 문화	4	도서관 건물 이용
			도서관 시설 이용
			도서관 자료 이용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비물질 문화	정신 문화	6	도서관의 가치, 이념, 철학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인식, 관념
			사서에 대한 관념, 인식
			사서의 가치관
			자료(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도서관 이용자의 사고방식
	행동 문화	14	도서관 규정, 법, 제도
			도서관 윤리, 의식
			도서관 자료 정리 및 관리 규정
			이용자의 대출 행태
			이용자의 자료 열람 행태
			이용자의 열람실 이용방법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행태
			이용자의 교육 참여
이용자의 도서관을 통한 독서 활동			
이용자의 정보 습득 및 이용			
이용자의 문제해결 및 개입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의 도서관 홍보			
도서관 조직(사서)의 행태			

3.1.2 델파이 분석

(1) 제1차 델파이 분석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공공도서관 사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 문화의 구성요소로 물질문화(용구문화)와 비물질문화(정신문화), 비물질문화(행동문화)로 구분한 24개 요소를 전술한 위의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반개방형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3개 영역에 필요한 구성요소들로 최초 제시한 요소보다 26개(교수 19개, 사서 7개) 요소가 증가하여 총 50개의 구성요소들이 나열되었다. 이중 각 영역별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구성요소들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항목의 표기가 변화된 요소로는 1차 설문에서 행동문화에 속한 정보습득과 이용자의 문제해결, 독서활동은 이용자의 이용행태로 통합하고, 도서관 조직(사서)의 행태는 사서의 직무 만족도로 재정의 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에 따른 행위에 대한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자의 충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사결과 총 전문가 패널 20명중에서 80%에 해당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를 토대로 2차 설문을 작성하여 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을 배포하였다.

〈표 4〉는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결과와 추출된 영역 및 구성요소이다. 물질문화의 중위계층은 용구문화로 표기되나 물질문화에 대한 하위개념 요소가 하나로 구분되어 상위계층과 중위계층의 개념적 요소가 동일하므로 앞으로의 기술은 용구문화를 대신하여 동등한 의미로 보다 친숙한 용어인 물질문화로 기술하기로 한다.

1차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도서관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어렵게 생각하는 패널이 있었다. 따라서 교수진 패널은 구성요소의 추가 내용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사서진 패널의 요소 추가는 적었다. 또한 사서들의 요소 추가는 운영주체나 상위기관의 철학, 도서관 주변의 환경적 요소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의 요소 추가가 일어났다.

교수진 패널의 질문으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사서와 이용자로 인식을 구분해야 하지 않는가? 도서관 이용자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윤리와 의식의 대상은 누구인가? 등 다소 확정 짓기 난해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다.

〈표 4〉 1차 델파이조사 추출항목

영역	요소	구성요소
물질문화	1	도서관 건물 이용 및 이용법
	2	도서관 시설 이용 및 이용법
	3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이용법
	4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5	도서관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6	도서관 주변환경
정신문화	7	도서관의 가치·철학
	8	상징적가치(건물자체, 공간, 장소)
	9	도서관의 사회성, 사회적기여도
	10	지역사회 이념
	11	도서관 운영 주체의 철학
	12	사서의 가치관
	13	정보의 가치
	14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인식, 관념
	15	문화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16	교육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17	정보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18	사서(직업)에 대한 관념, 인식
	19	이용자의 사고방식(기대, 자기계발)
	20	독서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인식
비물질문화	21	도서관법
	22	도서관 제도, 정책(홍보)
	23	도서관 규정(수서, 정리, 열람, 자료보존, 시설관리 등)
	24	도서관(이용자, 사서) 윤리, 의식
	25	이용자의 이용행태
	26	사서의 직무 만족도
	27	이용자의 만족도
	28	이용자의 충성도
	29	도서관 후원활동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구성요소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표를 생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확정된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이나 요소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차 델파이 분석

2차 델파이 설문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되었던 구성요소들을 대상으로 개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2차 델파이설문을 위한 새로운 평가요소들을 도출하고 배포하였다(〈표 5〉 참조). 2차 델파이 설문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 문화 구성요소들에 대한 각 영역별 구성요소로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총 29개의 구성요소들을 사용하였다. 설문 구성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하여 각 평가요소별 중요성을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1차 델파이 조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전문가 패널 중 100%에 해당하는 20명의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된 만큼 반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던 1차 델파이 조사보다 응답이 수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유형화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최종 계층적의사결정 방법의 사전검증 차원에서 수행된 만큼 1차 조사와는 달리,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n: CVR)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항목간의 일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신뢰도는 Crombach's α 값(설문항목에 대하여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판정기준 값은 0.6 또는 0.7)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자체가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른 응답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타당성은 확보해야 한다(안진성 2013, 47).

〈표 6〉은 Lawshe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CVR은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Lawshe 1975, 568).

내용타당도 분석결과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총 29개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CVR의 비율은 델파이 패널수 2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42의 범위 안에 있는 요소만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로서의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mbach's α 값은 평가요소 모두가 0.862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분석 도구로는 SPSS 21를 사용하였다.

타당도 측정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된 총 29개의 구성요소 중 타당도가 낮은 8개 항목위의 〈표 7〉을 제거하고 총 21개 구성요소를 계층적의사결정방법 적용을 위한 요소로 확정하였다.

〈표 5〉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871	.881	29

항목통계량				
구성요소	평균	표준편차	CVR	Cronbach 알파
도서관건물 이용 및 이용법	3.2500	1.11803	-0.2	.869
도서관시설 이용 및 이용법	3.9000	.85224	0.4	.862
도서관자료 이용 및 이용법	4.9500	.22361	1	.871
도서관 프로그램 및 이용법	4.1000	.85224	0.6	.871
도서관 주변환경 이용	2.6500	1.03999	-0.6	.870
도서관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4.1000	.78807	0.5	.873
도서관의 가치	4.5000	.68825	0.8	.869
상징적 가치(건물, 공간, 장소)	3.9000	.85224	0.4	.867
도서관의 사회성, 사회적기여도	4.3500	.74516	0.7	.875
지역사회 이념	3.5000	1.23544	0.2	.859
도서관 운영주체의 철학	4.6000	.68056	0.8	.867
사서의 가치관	4.8000	.41039	1	.868
정보(자료)의 가치	4.6000	.50262	1	.866
도서관 전반에 대한 관념과 인식	4.2500	.71635	0.7	.869
문화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3.6000	.75394	0.2	.870
교육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3.6500	.74516	0.2	.862
정보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4.1500	.74516	0.6	.871
사서에 대한 관념과 인식	4.5500	.68633	0.8	.863
이용자의 사고방식(기대, 자기계발)	4.3000	.73270	0.7	.862
독서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인식	4.8500	.36635	1	.868
도서관 법	4.3000	.65695	0.9	.873
도서관제도 정책	4.1000	.78807	0.7	.872
도서관규정(수서, 정리, 열람, 자료보존, 시설관리 등)	3.9500	.68633	0.5	.870
도서관(사서, 이용자)윤리, 의식	4.4000	.68056	0.8	.863
이용자의 이용행태(대출, 열람, 교육참여, 프로그램참여, 독서 등)	4.1500	.81273	0.5	.862
사서의 직무만족도	4.4000	.59824	1	.863
이용자의 만족도(사서, 정보습득, 이용, 도서관서비스, 문제해결 등)	4.5000	.60698	0.9	.862
이용자의 충성도	4.0000	.56195	0.7	.872
도서관 후원활동	3.5500	.60481	0.2	.862

〈표 6〉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소값(p=.05)

패널 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 최소값	0.99	0.99	0.99	0.78	0.75	0.62	0.59	0.56	0.54	0.51	0.49	0.42	0.37	0.33	0.31	0.29

〈표 7〉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제거 항목

영역	항목	항목	CVR	Cronbach 알파	
물질문화	1	도서관 건물 이용 및 이용법	-0.2	.869	
	2	도서관 시설 이용 및 이용법	0.4	.870	
	3	도서관 주변 환경 이용	-0.6	.870	
비물질문화	정신문화	4	상징적 가치(건물, 공간, 장소)	0.4	.867
		5	지역사회 이념	0.2	.859
		6	문화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0.2	.870
		7	교육센터로서의 관념과 인식	0.2	.862
		8	도서관 후원활동	0.2	.862
	행동문화				

3.2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우선순위 도출

3.2.1 연구방법 및 과정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은 Saaty에 의해 개발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시스템적 과정이다(안진성 2010, 50). 즉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관을 포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 기법은 그 단순성, 명확성, 간편성,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여러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왔다(조근태 외 2003, 3). 이 방법은 의사결정 문제가 평가, 선택, 예측되어 질 때와 의사결정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다(Saaty 1983, 17).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단계의 작업이 수행된다(http://www.kmis.or.kr/3_sig/sem_data/sem(mar05)1.pdf =2015/04/07).

〈표 8〉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의 적용절차

단계	내용
1 단계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2 단계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로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3 단계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측정한다(가중치(weight): 우선순위벡터(priority vector)를 일컫는 말로서, 이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가 된다).
4 단계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다.

이 연구는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21개의 평가요소들을 중심으로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 구성요소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는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이 공공도서관문화에 대한 구성요소들을 유사한 속성끼리 분류, 구조화하고 델파이기법을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량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하고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여 구성요소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Satty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27개의 수치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거리와 상대적 거리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험을 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1-9까지의 척도가 실제 치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Satty 1983, 68-83). 따라서 이 연구의 측정과 분석을 위해 이를 활용하였다. 〈표 9〉는 쌍대 비교의 척도이다(조근태 외 2003, 7).

〈표 9〉 쌍대 비교의 척도

중요도	정의	설명
1	비슷함	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활동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3	약간 중요함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5	중요함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중요함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극히 중요함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선호됨
2,4,6,8	위 값들의 중간 값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비교 값이 위 값들의 중간 값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역수 값		활동 i가 활동 j에 대하여 위의 특정 값을 갖는다고 할 때, 활동 j는 활동 i에 대하여 그 특정 값의 역수 값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의 분석은 응답자들의 쌍대비교 데이터의 입력을 토대로 엑셀의 MMULT 함수를 활용하여 가중치 계산, 일관성지수, 일관성 비율 등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1) 전문가 선정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문화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체적인 요인들을 종합하여 계층적 구조를 구성, 활용하였다. 각 항목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최종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앞선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21개의 구성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들 간의 계층화와 더불어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학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패널로 선정하기 위해 1, 2차 델파이 조사의 참여자들을 최종조사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총 2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0명(100%)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대상자의 진공분야별로 문헌정보학과 교수 10명, 공공도서관 사서 1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설문 수집은 2015년 3월 17일-4월 2일까지 17일 동안 진행하였다.

3.2.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 분석

(1)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비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문화 분야와 구성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쌍대비교한 후, 응답한 자료를 입력 행렬로 전환하여 엑셀(Excel 2010)을 이용해 코딩한 후 행렬의 동일성분 값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구하여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 기하평균을 사용한 이유는 산술 평균 및 조화평균 등의 다른 평균값보다 변량 중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덜 받고 비율적 비교의 방법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문화의 중위계층별 각 영역 간 기하평균에 대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기준항목	비교항목	기하평균
물질문화	정신문화	2.2925
	행동문화	0.7372
정신문화	행동문화	0.5925

수학적으로 조합에 의해 비교 횟수는 ${}_3C_2$ 즉, 3번 비교되었으며, <물질문화>에 대비하여 <정신문화>가 2.2925의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문화>와 대비하였을 때 <행동문화>에 대한 기하평균 값이 0.5925의 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① 물질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비교

'물질문화'에 대한 각 구성요소 간의 기하평균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조합에 의해 비교 횟수는 ${}_3C_2$, 즉, 3번 비교되었다.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대비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이 1.0880의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료이용 및 이용법> 대비 <프로그램이용 및 이용법>이 0.2364의 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 물질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기준항목	비교항목	기하평균
자료이용 및 이용법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0.2364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0.3638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1.0880

② 정신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비교

'정신문화'에 대한 각 구성요소 간의 기하평균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2> 정신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기준항목	비교항목	기하평균
도서관의 가치·철학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	1.5465
	운영주체의 철학	1.8624
	사서의 가치관	1.1450
	정보(자료)의 가치	1.1499
	도서관에 대한 관념	1.3390

기준항목	비교항목	기하평균
도서관의 가치·철학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2.0800
	사서에 대한 인식	1.0744
	이용자 사고방식	1.2780
	독서의 가치와 효용	1.0342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	운영주체의 철학	1.1302
	사서의 가치관	0.9262
	정보(자료)의 가치	1.2302
	도서관에 대한 관념	1.0298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1.3850
	사서에 대한 인식	0.9302
운영주체의 철학	이용자 사고방식	0.8956
	독서의 가치와 효용	1.3969
	사서의 가치관	1.0610
	정보(자료)의 가치	1.1842
	도서관에 대한 관념	1.5207
사서의 가치관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1.6898
	사서에 대한 인식	1.1887
	이용자 사고방식	1.1842
	독서의 가치와 효용	1.1399
	정보(자료)의 가치	1.5667
정보(자료)의 가치	도서관에 대한 관념	1.4830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2.0099
	사서에 대한 인식	1.8708
	이용자 사고방식	1.8474
	독서의 가치와 효용	1.6545
도서관에 대한 관념	도서관에 대한 관념	1.3730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1.6963
	사서에 대한 인식	1.2349
	이용자 사고방식	1.4200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독서의 가치와 효용	1.2354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2.3791
	사서에 대한 인식	1.4140
사서에 대한 인식	이용자 사고방식	1.8780
	독서의 가치와 효용	1.5325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0.6494
이용자 사고방식	이용자 사고방식	0.9420
	독서의 가치와 효용	0.6690
독서의 가치와 효용	이용자 사고방식	1.3969
	독서의 가치와 효용	1.1406
독서의 가치와 효용	독서의 가치와 효용	0.9506

수학적으로 조합에 의해 비교 횟수는 $_{10}C_2$, 즉, 45번 비교되었으며, <도서관에 대한 관념> 대비 <정보센터로서의 인식>이 2,3791의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대비 <사서에 대한 인식>이 0.6494의 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③ 행동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비교
'행동문화'에 대한 각 구성요소 간의 기하평균에 대한 결과는 <표 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

<표 13> 행동문화 구성요소 간 기하평균

기준항목	비교항목	기하평균
도서관법	도서관 제도·정책	0.8878
	도서관 규정	1.6465
	도서관 윤리·의식	0.6633
	이용행태	0.6576
	사서의 직무 만족도	0.5325
	이용자 만족도	0.4889
	이용자 충성도	0.5191
도서관제도·정책	도서관 규정	1.7328
	도서관 윤리·의식	0.8129
	이용행태	1.2780
	사서의 직무 만족도	0.9425
	이용자 만족도	0.6580
도서관 규정	이용자 충성도	0.9795
	도서관 윤리·의식	0.6720
	이용행태	0.8477
	사서의 직무 만족도	0.9038
도서관 윤리·의식	이용자 만족도	0.5129
	이용자 충성도	0.7665
	이용행태	1.1302
이용행태	사서의 직무 만족도	1.0796
	이용자 만족도	0.8232
	이용자 충성도	0.9585
사서의 직무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0.6074
	이용자 충성도	0.4691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충성도	0.5486
	이용자 만족도	0.7371
이용자 충성도	이용자 만족도	1.0170
	이용자 충성도	1.2946

다. 수학적으로 조합에 의해 비교 횟수는 $_8C_2$, 즉, 28번 비교되었으며, <도서관제도·정책> 대비 <도서관규정>이 1.7328의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행태> 대비 <이용자 만족도>가 0.4691의 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각 구성요소별 우선순위

①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대안의 종합적 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상대적 선호도를 종합하여 대안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종합중요도는 최종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점수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요컨대 종합중요도는 전체 계층의 종합중요도를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직계 상위계층의 가중치행렬에 그 상위계층에서 구한 가중치행렬을 곱하고 이 과정을 상위계층으로 반복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지표를 생성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의 순으로 <표 14>와 같이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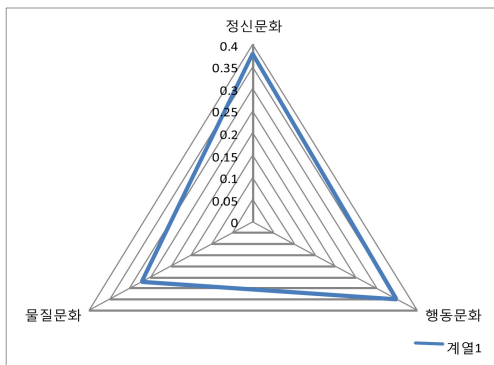
<표 14>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기준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비율
정신문화	0.3794	1	CI= -0.3320 (CI<0.10)
행동문화	0.3499	2	
물질문화	0.2708	3	
총계	1.0000		

구체적인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는 <정신문

화: 0.3794), <행동문화: 0.3499>, <물질문화: 0.2708>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정신문화> 요소로 물질보다는 정신을 더욱 중시하는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비교 대상인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의 가중치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값으로 도출된 것은 3가지 요소 모두가 대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평가영역별 우선순위 분석에 있어서, 쌍대비교의 신뢰성을 가늠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응답정도를 확인하는 CI지수(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로서,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 분석방법에 있어 두 변수들 간의 쌍대비교에 따라 충돌하는 속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일관적으로 응답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수) 값은 -0.3320으로 분석되어 매우 양호하게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그림 1>은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공공도서관문

화 영역의 물질문화, 정신문화, 행동문화 3가지 요소가 비교적 대등한 비중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물질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소 중 <물질문화>에 대한 구성요소 우선순위 결과는 <표 15>와 같이 분석되었다. <물질문화>에 대한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자료 이용 및 이용법',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물질문화 요소 중 자료가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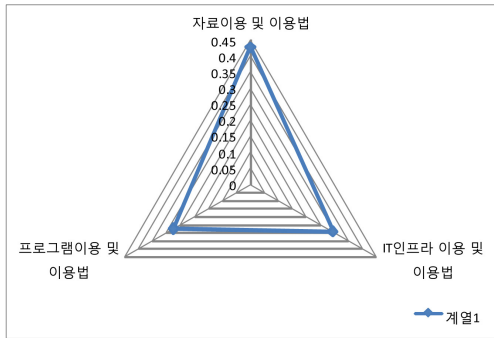
<표 15> 물질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기준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비율
자료 이용 및 이용법	0.4296	1	CI = -0.3289 (CI<0.10)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0.2948	2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0.2756	3	
총계	1.0000		

구체적인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는 '자료 이용 및 이용법(0.4296)', 'IT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0.2948)',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0.2756)', 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쌍대비교의 신뢰성을 가늠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응답정도를 확인하는 CI지수 값은 -0.3289로 분석되어 매우 양호하게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질문화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자료 이용 및 이용법'에

대한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물질문화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③ 정신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정신문화〉에 대한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사서의 가치관’, ‘도서관의 가치·철학’, ‘운영 주체의 철학’, ‘도서관에 대한 관념’, ‘정보(자료)의 가치’,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 ‘사서의 인식’, ‘독서의 가치와 효용’, ‘이용자의 사고방식’, ‘정보센터로서의 인식’의 순으로 다음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정신문화 요소 중 ‘사서의 가치관’이 가장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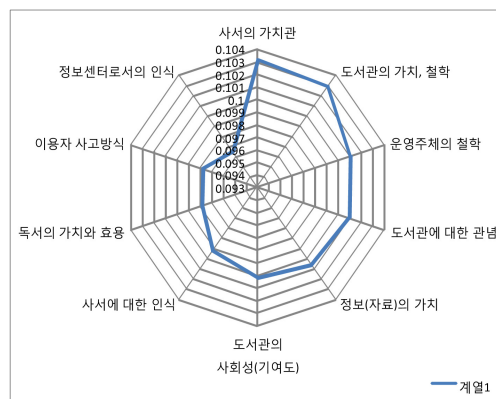
순위로 나타난 것은 도서관의 존재와 발전 등이 사서의 가치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서의 존재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대별한 것으로서 사서가 도서관의 변화와 발전의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다.

구체적인 가중치는 ‘사서의 가치관(0.1037)’, ‘도서관의 가치·철학(0.1028)’, ‘운영주체의 철학(0.1010)’, ‘도서관에 대한 관념(0.1009)’, ‘정보(자료)의 가치(0.1006)’,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0.1002)’, ‘사서의 인식(0.0993)’, ‘독서의 가치와 효용(0.0978)’, ‘이용자의 사고방식(0.0977)’, ‘정보센터로서의 인식(0.0965)’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쌍대비교의 신뢰성을 가늠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응답정도를 확인하는 CI지수 값은 0.0803으로 분석되어 양호하게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은 정신문화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정신문화 영역의 10가지 요소가 비교적 대등한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사서의 가치관’에 대한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높고 ‘정보센터로서의 인식’에 대한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정신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기준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비율
사서의 가치관	0.1031	1	CI=0.0803 (CI=0.10)
도서관의 가치·철학	0.1028	2	
운영주체의 철학	0.1010	3	
도서관에 대한 관념	0.1009	4	
정보(자료)의 가치	0.1006	5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	0.1002	6	
사서에 대한 인식	0.0993	7	
독서의 가치와 효용	0.0978	8	
이용자 사고방식	0.0977	9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0.0965	10	
총계	1.0000		



〈그림 3〉 정신문화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④ 행동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행동문화〉에 대한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도서관 윤리·의식’,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충성도’, ‘사서의 직무만족’, ‘이용자 행태’, ‘도서관 제도·정책’, ‘도서관법’, ‘도서관 규정’의 순으로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행동문화에 대한 요소 중 ‘도서관 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은 도서관에서의 규범적 요소가 가장 중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공공성을 의식한 결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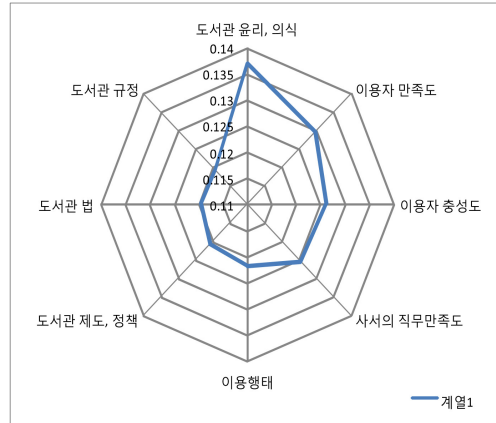
〈표 17〉 행동문화 영역의 우선순위

기준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비율
도서관 윤리·의식	0.1371	1	CI=0.0623 (CI=0.10)
이용자 만족도	0.1297	2	
이용자 충성도	0.1263	3	
사서의 직무만족도	0.1256	4	
이용행태	0.1218	5	
도서관 제도·정책	0.1208	6	
도서관 법	0.1195	7	
도서관 규정	0.1192	8	
총계	1.0000		

구체적인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는 ‘도서관 윤리·의식(0.1371)’, ‘이용자 만족도(0.1297)’, ‘이용자 충성도(0.1263)’, ‘사서의 직무만족도(0.1256)’, ‘이용자 행태(0.1218)’, ‘도서관 제도·정책(0.1208)’, ‘도서관법(0.1195)’, ‘도서관 규정(0.119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쌍대비교의 신뢰성을 가늠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응답정도를 확인하는 CI지수 값은 0.0623으로 분석되어 양호하게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는 행동문화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도서관 윤리·의식’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고 ‘도서관 규정’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행동문화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3)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구성요소 도출

①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전체 항목의 우선순위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요소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합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복합가중치 계산은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의 쌍대비교를 이용하여 산출한 다음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산출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문화의 구성요소로 총 21개의 요소에 대한 복합가중치 계산에 의한 전체 항목의 우선순위는 〈표 18〉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18〉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의 복합가중치

분류	구분	복합가중치	우선순위
물질문화	자료이용 및 이용법	0.1163	1
물질문화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0.0798	2

분류	구분	복합가중치	우선순위
물질문화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0.0746	3
행동문화	도서관 윤리·의식	0.0480	4
행동문화	이용자 만족도	0.0454	5
행동문화	이용자 충성도	0.0442	6
행동문화	사서의 직무만족도	0.0440	7
행동문화	이용행태	0.0426	8
행동문화	도서관제도·정책	0.0423	9
행동문화	도서관법	0.0418	10
행동문화	도서관 규정	0.0417	11
정신문화	사서의 가치관	0.0391	12
정신문화	도서관의 가치·철학	0.0390	13
정신문화	도서관에 대한 관념	0.0383	14
정신문화	운영주체의 철학	0.0383	15
정신문화	정보(자료)의 가치	0.0382	16
정신문화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	0.0380	17
정신문화	사서에 대한 인식	0.0377	18
정신문화	이용자 사고방식	0.0371	19
정신문화	독서의 가치와 효용	0.0371	20
행동문화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0.0366	21

가중치 우선순위와 달리 복합가중치 우선순위에서는 물질문화(요소 수, 3개), 행동문화(요소 수, 8개), 정신문화(요소 수, 10개) 순으로 <그림 5>와 같이 우선순위의 결과가 나왔다.



<그림 5>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의 종합적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결정은 하부영역의 요소수의 크고, 작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부영역의 요소 수가 작을수록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②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변환점수 계산

㉠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에 대한 변환점수 계산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도서관 문화지표의 개발과 문화지수 측정을 위하여 공공도서관문화 영역 간 변환점수를 종합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 간 변환점수를 산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공공도서관문화 영역의 변환점수

대분류	상대적 중요도	수식	변환점수
정신문화	0.3794	0.3794×100	37.9
행동문화	0.3499	0.3499×100	35.0
물질문화	0.2708	0.2708×100	27.1
총계	1.0000		100.0

영역별 변환점수는 종합 점수와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한 것으로 <정신문화> 37.9점, <행동문화> 35.0점, <물질문화> 27.1점으로 나타났다.

㉡ <물질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 계산

<물질문화>의 변환점수는 위의 평가영역에서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도출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물질문화> 상대적 중요도(가중치)와 종합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27.1점의 중요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질문화>에 대한 변환점수는 <물질문화>에 관련된 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점수

27.1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서관 물질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는 <표 20>과 같다.

<표 20> 물질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수식	변환점수
자료이용 및 이용법	0.4296	0.4296×27.1	11.6422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0.2948	0.2948×27.1	7.9891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0.2756	0.2756×27.1	7.4687
총계	1.0000		27.1

㉔ <정신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 계산

<정신문화>에 대한 변환점수는 위의 평가영역에서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도출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신문화> 상대적 중요도(가중치)와 종합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37.9점의 중요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문화>에 대한 변환점수는 <정신문화>에 관련된 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점수 37.9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서관 정신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 정신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수식	변환점수
사서의 가치관	0.1031	0.1031×37.9	3.9075
도서관의 가치, 철학	0.1028	0.1028×37.9	3.8961
운영주체의 철학	0.1010	0.1010×37.9	3.8279
도서관에 대한 관념	0.1009	0.1009×37.9	3.8241
정보(자료)의 가치	0.1006	0.1006×37.9	3.8127
도서관의 사회성(기여도)	0.1002	0.1002×37.9	3.7976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수식	변환점수
사서에 대한 인식	0.0993	0.0993×37.9	3.7635
독서의 가치와 효용	0.0978	0.0978×37.9	3.7066
이용자 사고방식	0.0977	0.0977×37.9	3.7028
정보센터로서의 인식	0.0965	0.0965×37.9	3.6574
총계	0.9999		37.9

㉕ <행동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 계산

<행동문화>에 대한 변환점수는 위의 평가 영역에서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도출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행동문화> 상대적 중요도(가중치)와 종합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35.0점의 중요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동문화>에 대한 변환점수는 <행동문화>에 관련된 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점수 35.0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서관 행동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는 <표 22>와 같다.

<표 22> 행동문화 구성요소의 변환점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수식	변환점수
도서관 윤리, 의식	0.1371	0.1371×35.0	4.7985
이용자 만족도	0.1297	0.1297×35.0	4.5395
이용자 충성도	0.1263	0.1263×35.0	4.4205
사서의 직무만족도	0.1256	0.1256×35.0	4.3960
이용행태	0.1218	0.1218×35.0	4.2630
도서관 제도 정책	0.1208	0.1208×35.0	4.2280
도서관 법	0.1195	0.1195×35.0	4.1825
도서관 규정	0.1192	0.1192×35.0	4.1720
총계	1		35.0

(4)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
구체적인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는 <정신문

화: 0.3794), 〈행동문화: 0.3499〉, 〈물질문화: 0.2708〉 순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소 중 정신문화에 대한 구성요소 우선순위는 사서의 가치관, 도서관의 가치·철학, 운영주체의 철학, 도서관에 대한 관념, 정보의 가치, 도서관의 사회적, 사회에 대한 인식, 독서의 가치와 효용, 이용자 사고방식, 정보센터로서의 인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문화에서는 도서관 윤리·의식,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충성도, 사서의 직무만족도, 이용행태, 도서관 제도와 정책, 도서관 법, 도서관 규정 순으로 나타났다. 물질문화는 자료이용 및 이용법, IT 인프라 이용 및 이용법,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순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이 연구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양식의 총체인 공공도서관 문화에 대한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공공도서관문화의 정의를 규명하고, 공공도서관문화의 구성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수집한 뒤 그 내용을 수렴하여 최종 요소를 도출하는 델파이기법과 도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요소별 쌍대비교를 통해 요소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검증할 수 있는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패널(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도서관 사서)을 대상으로 1·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29개 요소(물질문화 6, 비물질문화 23)를 추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계층적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21개 구성요소(물질문화 3, 비물질문화 18)를 도출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를 쌍대비교를 통해 나타난 우선순위는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가중치가 가장 높은 요소로는 〈정신문화〉의 ‘사서의 가치관’, 〈행동문화〉의 ‘도서관 윤리·의식’, 〈물질문화〉의 ‘자료 이용 및 이용법’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영, 장덕현. 2012.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457-479.
- [2] 고영복. 1997. 『문화사회학』.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2. 『외국도서관 최근동향 VI』. 도서관연구소자료집, 38.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외국도서관 최신동향 V』. 도서관연구소자료집, 3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외국도서관 최근동향 IV』. 도서관연구소자료집, 2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6] 김용성, 2002. 사상이 있는 도서관 문화: 항일 시대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24: 131-154.
- [7] 김용성, 1999. 도서관 문화를 조명한다. 『인문과학연구논총』, 21: 207-229.
- [8] 김용환, 2002. 『머리 사냥과 문화 인류학: 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인간 본성의 탐구』.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 [9] 문화체육관광부, 2008. 『도서관 설립·운영전략 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0]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08.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131-156.
- [11] 손연기, 1997. 정보문화지수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5: 183-208.
- [12] 안진성, 2010.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조경전공.
- [13] 유태용, 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 [14] 윤희윤, 2011.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73-95.
- [15] 이두영, 1990. 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 『도서관문화』, 31(6): 256-264.
- [16] 이상복 외, 2013. 교육청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183-209.
- [17] 이용남, 1996.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도서관문화』, 37(6): 8-14.
- [18] 조근태 외, 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 [19]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2011. 『문화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 [20] 한상완, 서혜란, 곽철완, 1997.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217-242.
- [21] Bierstedt, R. 1957. *The Social Order: The Social Order*. New York: McGraw-Hill.
- [22]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23] Ogburn, W. F. 1922.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 [24] Saaty, T. L. 1983. "Conflict Resolution and The Falkland Islands Invasions." *Interfaces*, 13(6): 68-83.
- [25]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J. Murray.

- [26] White, L. A. and Dillingham, B. 1973. *The Concept of Culture*.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Eun-Yeong and Chang, Durk-Hyun. 2012. "A Study on the Selection Proce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457-479.
- [2] Koh, Young-Bok. 1997. *Cultural Sociology*. Seoul: Community Research Institute Press.
- [3]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2. *Review on Foreign Library Trends VI*. KRILi series, 38.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1. *Review on Foreign Library Trends V*. KRILi series, 32.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5]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0. *Review on Foreign Library Trends IV*. KRILi series, 25.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6] Kim, Yong-Sung. 2002. "The Philosophy of the Library Culture in the Period of Anti-Japan Strife." *The Journal of Humanites*, 24: 131-154.
- [7] Kim, Yong-Sung. 1999. "Illuminate the Culture of the Library." *The Journal of Humanites*, 21: 207-229.
- [8] Kim, Yong-Whan. 2002. *Head Hunting and Cultural Anthropology: Exploration of Human Nature through Cultural Diversity*. Seoul: Open Books.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trategy for Public Librarie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0] Suh, Hye-Ran, Kim, Sun-Ae and Kang, Eun-Young. 2008.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Public Library Spa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131-156.
- [11] Son, Yeon-Gi. 1997. "A Study for Developing Information Culture Index." *Journal of Social Science*, 15: 183-208.
- [12] An, Jin Sung. 2010. *Developing Evaluation Criteria of Preservation Condition for the Historic Garden through Delphi Technique & Analytic Hierarchy Process*. Ph.D. diss,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13] Yu, Tae-Yong. 1999. *What is Culture?*. Seoul: School Relations, Culture Press.

- [14] Yoon, Hee-Yoon. 2011.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73-95.
- [15] Lee, Doo-Young. 1990. "Reinventing the Culture and Libraries to Transition Society." *Library Culture*, 31(6): 256-264.
- [16] Lee, Sang-bok et al. 2013. "Future Development for Public Libraries in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183-209.
- [17] Lee, Yong-Nam. 1996. "Our Culture's Current Library." *Library Culture*, 37(6): 8-14.
- [18] Cho, Keun-Tae et al. 2003.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Seoul: Dong Hyeon Publishers.
- [19] Han, Sang-Bok, Lee, Mun-Woong and Kim, Kwang-Ok. 2011. *Cultural Anthropolog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20] Han, Sang-Wan, Suh, Hye-Ran and Kwak, Chul-Wan, 1997. "A Study of the Future Direction and Model Development for the 21 Century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217-242.